

國語漢字音의 聲調 變化

李 東 華

< 목 차 >

1. 序 論	2.3 韓國漢字音의 聲調 變化
2. 本 論	2.3.1 通時的 變化
2.1 「訓蒙字會」의 聲調	2.3.2 共時的 變動
2.2 慶北方言의 聲調	3. 結 論

1. 序 論

1.1 國語音韻論 研究에 있어서 國語의 音韻體系, 音韻變化, 音韻現象 등 전반에 걸쳐 通時的 또는 共時的 方法에 의해 그동안 매우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國語에 수용된 漢字音에 대해서는 이 분야를 전공하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심도있게 논의되었을 뿐 상대적으로 관심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¹⁾ 아울러 中國漢字音의 聲調가 國語에 수용되면서 어떻게 現實音으로 정착되게 되었으며, 그것이 現代國語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하는 문제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感이 없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16C 초의 資料인 「訓蒙字會」²⁾에 나타난 당시의 聲調가 現代國語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으며, 現代國語 특히 慶北方言³⁾에서는 漢字音 聲調가 共時的으로 어떤 변동을 하고 있는 지를 밝혀보고자

-
- 1) 國語 漢字音 研究에 대해서는 宋 敏(1990) 및 權仁瀚(1997)에 의해 개괄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2) 이보다 앞선 시기인 15C 초에 간행된 「東國正韻」에도 傍點 表記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나, 所知하는 바와 같이 당시의 現實音보다는 中國漢字音에 가깝도록 四聲을 구별하여 표기하고 있어 일단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다.
 3) 慶北方言은 超分節音素에 있어서 聲調와 音長을 지닌 言語이기 때문에 中世國語 聲調와의 대응

한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 卅世國語 漢字音의 聲調가 現代國語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과정은 물론 卅國漢字音이 國語에 수용되면서 國語 音韻規則에 동화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國語 聲調에 대한 研究는 그동안 많은 업적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은 대체로 세 갈래의 방법으로 접근되었다고 볼 수 있다. 訓民正音 창제 당시의 15C 문헌에 나타난 傍點 表記를 중심으로 한 共時的 研究, 卅世國語와 現代國語 聲調의 對應關係에 의한 通時的 研究, 그리고 現代國語(주로 慶尙道方言)의 聲調에 대한 共時的 研究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國語漢字音의 聲調와 現代國語인 慶北方言의 聲調에 초점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 방면의 연구업적을 간략히 개괄하기로 한다.

먼저 徐在克(1968)에서는 「漢字典」⁴⁾의 자료에 나타난 漢字音 聲調가 현대의 慶北方言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데, 성조의 변동 유형을 下降型, 上昇型, 平坦型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語頭音節의 平聲은 매우 불안정하여 자주 聲調 변동을 일으키고, 非語頭音節에서는 長音이 실현되지 않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卅國漢字音의 四聲과 現代 慶北方言에서의 漢字音 聲調를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그 方法論에 있어서 무리한 점이 있다.

다음으로 金永萬(1967)에서는 朝鮮前期의 자료인 『訓蒙字會』에 대한 분석을 통해 漢字音 四聲이 國語漢字音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통계학적으로 처리하면서, 平聲은 0點으로, 上聲 및 去聲은 주로 2點으로, 入聲은 1點으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金永萬(1988)에서는 卅國語 四聲이 卅世國語를 거쳐 現代國語, 특히 慶北方言의 聲調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그리하여 卅國語 四聲 가운데 平聲은 卅世國語에서는 0點韻으로 慶北方言에서는 平類로, 上·去聲은 2點韻을 거쳐 平類로, 入聲은 1點韻을 거쳐 平類로 각각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金永萬(1999)에서는 종전보다 시야의 폭을 넓혀 漢詩의 平仄 개념과 四聲이 國語에 수용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韻素化되는 과정과 그것들이 現代國語에 반영된 양상을 살피고 있다. 이런 일련의

관계를 究明하는 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4) 이 자료는 田中慶太郎이 1940년 日本 文求堂 書店에서 펴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四聲 表記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논의를 통해 論者는 中國의 四聲이 國語에 수용되면서 11世國語의 傍點 表記인 0點, 1點, 2點이 각각 꽃類, 풀類, 별類로 정착되어 現代의 慶北方言에 이르러서는 또한 高強調, 11平調, 長音(11平調)로 각기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慶北方言의 성조체계에서 高調와 11調는 있으나 低調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과연 타당하나 하는 것이다.⁵⁾

이렇게 볼 때 漢字音 聲調가 國語에 수용되면서 변화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가닥이 잡혔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들의 音韻機制나 現代國語에서의 音韻現象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제약상 『訓蒙字會』에 반영된 11世國語 漢字音의 聲調가 現代國語인 慶北方言에 어떻게 대응되며, 또한 그것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聲調의 변동현상에 대해 우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2. 本 論

2.1 『訓蒙字會』의 聲調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1宗 22年(1527年), 崔世珍에 의해 편찬된 訓蒙字會는 그 당시의 現實漢字音뿐만 아니라 漢字音의 聲調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⁶⁾

우선 訓蒙字會에서의 四聲과 傍點에 대한 설명을 보기로 하자.

(1) 平聲은 낮은 소리로서 0點

上聲은 길게 끌이 올라가는 소리로서 2點

去聲은 높은 소리로서 1點

入聲은 곧고 빠른 소리로서 1點

5) 물론 이런 성조체계는 慶南方言의 高, 中, 底 3단계계를 염두에 두고 설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고저(pitch)의 개념 자체가 특정언어에서의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東國正韻에 비해 訓蒙字會가 現實漢字音을 훨씬 더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金永萬(1988)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위의 기술로 보아 崔世珍 자신이 四聲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음을 보여주며, 특히 去聲과 入聲의 경우 비록 傍點 表記는 다같이 1點이나 國語에서의 入聲은 高底와 관계없이 終聲이 ‘ㄱ, ㄴ, ㅂ’으로 끝나는 소리를 가리키는 바,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兩者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다음 節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될 것이지만, 이들이 慶北方言에 반영된 양상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에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 四聲이 訓蒙字會에 나타난 몇몇 예를 먼저 제시한다.

(2) ㄱ. 平聲

天, 春, 兄, 朝, 年, 時, 山, 形, 身, 田, ……

ㄴ. 上聲

野, 電, 海, 浦, 界, 性, 老, 序, 校, 命, ……

ㄷ. 去聲

地, 象, 首, 表, 紙, 主, 印, 板, 吐, 自, ……

ㄹ. 入聲

H, 月, 雪, H, 舌, 幕, 習, 惡, 踏, 玉, ……

위의 예에서 (2ㄷ)의 去聲과 (2ㄹ)의 入聲은 傍點 표기에서는 모두 1點으로 차이가 없으나 終聲을 고려하면 (2ㄹ)의 예들의 入聲임이 쉽게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 四聲은 현대의 慶北方言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실현되고 있다.⁷⁾

(2) 平聲 → 대부분 高調

上聲 → 대부분 底長調

去聲 → 대부분 底調

入聲 → 전부 底調

이렇게 볼 때 16C 초의 國語漢字音 聲調는 國語의 音韻體系에 同化되면서 약간의 변화 과정을 거쳐 現代國語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여기에서 ‘高調, 底調, 底長調’ 등은 慶北方言의 聲調 기술을 위해 잠정적으로 쓰는 用語다.

2.2 慶北方言의 聲調

그동안 國語의 聲調 研究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업적이 쌓여져 있는 셈이다. 中世國語의 聲調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現代國語, 특히 慶尙道方言의 聲調에 대한 연구 업적 또한 괄목할 만하다. 본고는 中世國語의 聲調에 대한 研究가 주된 관심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적어도 漢字音 聲調의 설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慶尙道方言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慶尙道方言의 聲調 研究史는 李東華(1990)에서 이미 개괄적으로 다룬 바 있고, 최근 이문규(1998)에서도 비교적 자세히 고찰하고 있거나 慶尙道方言 중에서도 聲調에 있어 慶南·北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이 글의 성격상 여기서는 慶北方言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聲調를 논의함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聲調素의 설정이나 聲調體系의 확립 문제이다. 먼저 聲調體系에 있어서는 慶南·北의 차이를 고려하여 慶北方言은 高低 二段體系로, 慶南方言은 高高低 三段體系로 보는 것이 學界의 큰 흐름인 것 같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音聲學의 側面에서나 話者들의 言語認識에 있어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辨別的 機能을 확인하는데 이용되는 最小對立雙을 한두 개 들어보자.

- (4) ㄱ. 말(馬) — 高調(H)
 말(斗) — 低調(L)
 나. 가지(種) — 高低調(HL)
 가지(茄) — 低高調(LH)

그러면 이 方言에서의 聲調素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最小對立雙을 제시한다.⁸⁾

8) 여기에 제시된 (5ㄱ)의 예들에 대해 崔明玉(1998)에서는 ‘말(馬)’의 基底聲調를 L로, ‘말(斗)’의 基底聲調를 H로 잡는 특이한 견해를 보였으나, 이미 이문규(1998)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方案은 中世國語와 慶北方言 聲調와의 일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설득력이 약한 설명을 하게 된 셈이고, 이문규(1998)는 (5ㄱ)의 예들에 대해 각각 H, L, R의 聲調素를 설정하였으나 이것 역시 음성학적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즉, ‘말(言)’은 上昇調(R)로 설정하였으나 이것은 ‘낮고 긴 소리’이지 ‘낮다가 높아가는 소리’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5ㄱ)은 體言이고 (5ㄴ)은 用言의 語幹이다.

- (5) ㄱ. 말(馬) — 高調(H)
 말(斗) — 低調(L)
 말(言) — 低長調(L \bar{L})
 ㄴ. 갈-(換) — 高調(H)
 갈-(磨) — 低調(L)
 갈-(耕) — 低長調(L \bar{L})

聲調言語이면서 音長言語인 慶北方言을 설명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聲調 表記의 장점은 ‘말(言)’을 L \bar{L} 조로 설정함으로써 1音節이 2모라(mora)의 길이를 나타내므로 동시에 長音임을 쉽게 표시할 뿐 아니라 非語頭音節에서 L \bar{L} 이 L로 바뀌는 知母音化 過程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音節縮約이나 被動接尾辭의 聲調 表示도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이다.

- (6) ㄱ. 사이 > 새(間) [H \bar{L}]
 다음 > 담(次) [H \bar{L}]
 ㄴ. 잡히 - (被執) [LH \bar{L}]
 날리 - (被飛) [LH \bar{L}]

결론적으로 말해 慶北方言의 聲調體系는 高低 二段體系로 보며, 1모라인 知音은 單一聲調(H, L)로, 2모라인 長音은 複合聲調(L \bar{L} , H \bar{L})로 표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⁹⁾

2.3 國語漢字音의 聲調 變化

2.3.1 通時的 變化

國語漢字音의 聲調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中國漢字音이 國語에 수용된 과정부

金永萬(1997)에서는 이들 예에 대해 각각 ‘꽃類(O), 풀類(U), 별類(W)’로 해석한 바 있다.
 9) 慶北方言의 聲調와 音長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李東華(1993) 참조.

터 살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문제에 초점이 주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 방면의 研究는 우선 金永萬(1967, 1988)에 기대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漢字音 四聲이 訓蒙字會(尊經閣本)에 반영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7) 漢字音 四聲의 同音化 통계

四聲 \ 傍點	0 點	1 點	2 點	계
平 聲	1,404	23	26	1,453
上 聲	23	94	503	620
去 聲	36	102	566	704
入 聲	24	574	6	604
계	1,487	793	1,101	3,381

이것으로 보아 뚜렷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平聲은 대부분 0點으로, 入聲 또한 대부분 1點으로 반영되고 있음에 비해 上聲과 去聲은 양자가 비슷하게 2點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경향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 漢字音 四聲의 國音化 경향

平聲 → 0點
 上聲 } → 2點, 1點(일부)
 去聲 }
 入聲 → 1點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 漢字音을 수용할 시기에 中國語와 國語 상호 간에 유사한 資質이 있는 것끼리 짝지어졌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게 해 준다(金永萬, 1988 : 304).

이렇게 國語에 수용된 漢字音은 16C 초의 자료인 訓蒙字會에 그 당시의 現實

음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들이 현대의 慶北方言에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볼 차례다.

우선 訓蒙字會에 실린 3,300餘字의 자료를 보면 現在 거의 쓰이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극히 낮은 字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의 漢字음이 現代國語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어차피 이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선별 기준은 다분히 筆者의 주관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겠으나 최대한 客觀性을 살려 주로 老年層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은 漢字음을 선정해 보았다. 그 결과 634字가 된 것이다. 이 숫자를 恣意的으로 더 加減할 필요없이 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여기서는 聲調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現象을 살펴기로 한다.¹⁰⁾

資料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分類方法의 문제인데, 漢字音 四聲을 위주로 분류하느냐 國語의 傍點을 위주로 분류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前者의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去聲과 入聲의 경우 비록 傍點 表記는 다같이 1點이지만 兩者는 韻의 특징이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入聲은 高底와 관계없이 ‘빨리 끝나는 소리’로서 終聲이 ‘ㄱ, ㄴ, ㅂ’으로 끝나는 것을 가리키므로 去聲과 쉽게 구별됨이 다음 예에서 확인된다.

(9) ㄱ. 去聲 : 土, 象, 體, 首, 氏, 紙, 地, ……

ㄴ. 入聲 : H, 月, 夕, 谷, H, 骨, 足, ……

위의 (9ㄱ, ㄴ)은 傍點이 모두 1點이지만 (9ㄱ)의 예는 去聲이고 (9ㄴ)의 예는 入聲인 것이다.

그러면 이들 四聲이 慶北方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慶北方言의 聲調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H, L, L₁의 聲調素를 사용하게 된다.

(10) 平聲

10) 金永萬(1994 : 127)에서는 <訓蒙>에 제시된 漢字의 訓과 音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령 ‘肝 : 간 간’의 경우 왼쪽의 ‘: 간’은 ‘漢字語의 音’으로, 오른쪽의 ‘간’은 ‘漢字의 音’으로 해석하여 양자를 구별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오른쪽의 音을 활용하기로 한다.

ㄱ. H인 것(대부분)

天, 陰, 陽, 年, 時, 風, 雪, 山, ……

ㄴ. L인 것(일부분)

秋, 竹, 肢, 額, 腹, 育, 枝, 酒, ……

ㄷ. L인 것(일부분)

夏, 冬, 江, 肝, 童, 盲, 店, 村, ……

(11) 上聲

ㄱ. L인 것(대부분)

宇, 野, 電, 雨, 海, 肺, 性, 意, ……

ㄴ. H인 것(일부분)

派, 頂, 齒, 乳, 卷, 舍, 化, 行,¹¹⁾ ……

ㄷ. L인 것(일부분)

阜, 浪, 井, 路, 犬, 木, 七, 十, ……

(12) 去聲

ㄱ. L인 것(대부분)

紙, 土, 象, 首, 祖, 父, 女, 子, ……

ㄴ. H인 것(일부분)

部, 嚙, 射, 關, 管, 稻, ……

ㄷ. L인 것(일부분)

馬, 禮, 令, 引, 飲, 內, ……

(13) 入聲

ㄱ. L인 것(전부)¹²⁾

H, 月, 石, H, 舌, 食, 習, 邑, ……

물론 여기에 제시된 慶北方言의 聲調型은 주로 筆者의 직관에 의한 것이기 때

11) 上聲으로 분류된 '行'에 대해서는 <訓蒙>에서도 그 訓과 音이 '갈 행'으로 쓰일 때는 上聲으로, '행적 행'으로 쓰일 때는 去聲으로 소리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12) 여기에서 入聲이 전부 'L'으로 분류된 것은 筆者가 조사한 자료에 그렇게 나타난 것일 뿐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문에 現實音과 약간의 차이가 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漢字音 四聲과 慶北方言과의 대응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으나 兩者의 對應關係를 좀더 명확히 비교하기 위해 이번에는 필자가 가려뽑은 634字에 대한 分析 結果를 다음과 같이 統計表로 제시한다.

(14) 16C 漢字音과 慶北方言 漢字音의 聲調

16C國語漢字音 \ 慶北方言	H	L	L̄	계
平 聲 (0點)	215	14	37	266
上 聲 (2點)	23	17	152	192
去 聲 (1點)	7	32	14	53
入 聲 (1點)	0	123	0	123
계	245	186	203	634

이 表에서 우리는 몇 가지 뚜렷한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 16C의 國語 漢字音 中 平聲은 現代 慶北方言에서 주로 H, 그리고 일부는 L 또는 L̄과 대응되고, 上聲은 주로 L̄, 그리고 일부는 H 또는 L과 對應되고, 去聲은 주로 L, 그리고 일부는 H 또는 L̄과 對應되고, 入聲은 모두 L과 對應된다는 사실이다.¹³⁾

이것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漢字音 四聲과 慶北方言

- 平聲(0點) → 대부분 H (일부는 L, L̄)
- 上聲(2點) → 대부분 L̄ (일부는 H, L)
- 去聲(1點) → 대부분 L (일부는 H, L̄)
- 入聲(1點) → 전 부 L

13) 이와 같은 사실은 金永萬(1988)에서 ‘中世國語 傍點 表記의 0點, 2點, 1點이 慶北方言의 哭類, 別類, 痛類와 대응된다’고 보는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C 國語漢字音의 四聲은 慶北方言의 聲調와 일정한 對應關係를 갖고 있는 바, 平聲은 주로 H, 上聲은 주로 L \uparrow , 去·入聲은 주로 L과 대응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中國 漢字音의 四聲은 國語에 受容되면서 國語의 韻律體系에 어느 정도 同化되는 과정을 거쳐 現代國語인 慶北方言에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3.2 共時的 變動

漢字는 대체적으로 글자마다 語彙의 意味와 文法的 意味를 함께 지니고 있어 自立性이 매우 강하며 각 音節마다 고유한 聲調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글자가 하나의 形態素 또는 單語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글자가 결합하게 되면 새로운 形態素 또는 單語를 형성하는 동시에 각 音節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聲調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¹⁴⁾

여기서는 漢字音 四聲이 國語에 受容되고 난 다음 현재 쓰이고 있는 慶北方言의 漢字音 聲調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漢字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漢字語는 國語에서 이미 하나의 單語로 굳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漢字音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聲調 變動의 音韻機制(phonological mechanism)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現象은 國語(慶北方言)의 聲調現象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慶北方言에 있어 單語形成 과정에서 실현되는 여러 聲調現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漢字音의 聲調變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方言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H, L, L \uparrow 의 세 聲調素가 있는데, 이것은 고유어 뿐만 아니라 漢字語의 聲調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方言에서 실현되는 몇몇 聲調現象 가운데 먼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기로 하자.¹⁵⁾

(16) ㄱ. 꽃(花) [H] # 집(家) [H] → [LH]

14) 이것은 엄밀히 말해 共時的 現象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앞에서 다룬 通時的 變化와 약간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다루게 된 것이다.

15) 여기에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李東華(1990)에 의존한다.

콩(豆) [H] # 밭(田) [H] → [LH]

ㄴ. 말(馬) [H] # 꼬리(尾) [HL] → [LHL]

콩(豆) [H] # 뿌리(根) [HL] → [LHL]

위의 (16ㄱ, ㄴ)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H와 H가 직접 결합할 때는 이 聲調를 지닌 單語의 音節數에 관계없이 先行하는 H가 後行하는 H 앞에서 L로 變動됨을 알게 된다. 이런 현상을 ‘逆行異化’라 하며, 이에 대한 규칙은 (17)과 같다.

(17) 逆行異化規則

$H \rightarrow L / \text{ ______ } \# H^{60}$

다음으로 이 方言에는 L을 지닌 音節 다음에 H를 지닌 音節이 결합할 때 後行하는 H가 先行하는 L에 同化되어 L로 바뀌는 現象이 있는데, 이를 ‘順行同化’라 하며 이와 관련된 資料는 (18)과 같다.

(18) ㄱ. 손(手) [L] # 등(背) [H] → [LL]

불(火) [L] # 꽃(花) [H] → [LL]

ㄴ. 돈(錢) [L̄] # 바람(風) [LH] → [L̄ LL]

돌(石) [L̄] # 부처(佛) [LH] → [L̄ LL]

여기에서 (18ㄱ)은 L과 H가 직접 결합하는 경우이며, (18ㄴ)은 L과 H가 간접 결합하는 경우이나 그 결과는 동일하다. 그리고 이 현상을 支配하는 規則은 (19)와 같다.

(19) 順行同化規則

$H \rightarrow L / L \# \text{ ______ }$

그리고 이 방언은 慶南方言과 달리 音長이 변별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때 音節의 位置가 非語頭音節이면 音長이 줄어들지만 聲調의 높낮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聲調가 ‘單純化’하는 현상은 (20)의 예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한 規則은 (21)로 나타내어진다.

16) 여기에서 경계표시 ‘#’는 國語의 複合語 境界를 나타내는데, 앞으로 漢字語의 경계표시로도 사용될 것이다.

- (20) ㄱ. 알(卵) [L] # 밤(栗) [L̄] → [LL]
 낮(晝) [L] # 말(言) [L̄] → [LL]
 집(家) [H] # 일(事) [L̄] → [HL]
 ㄴ. 눈(雪) [L̄] # 사람(人) [L̄ L] → [L̄ LL]

(21) 單純化規則

$$L̄ \rightarrow L / \sigma \# \text{ _____ }$$

위 (21ㄱ, ㄴ)에 提示된 예들을 통하여 非語頭音節의 L̄은 L로 單純化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지금까지의 몇몇 聲調現象과 그 規則들은 慶北方言 漢字音의 聲調 變動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들이 될 줄 생각한다.

그러면 慶北方言에서 現在 쓰이고 있는 漢字音의 聲調에 관계되는 여러 現象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漢字音이 지녔던 聲調도 慶北方言의 聲調體系에 이미 同化되었으므로 漢字音의 聲調 역시 H, L, L̄의 세 가지 聲調素가 있다. 따라서 漢字音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聲調現象도 慶北方言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다음의 예에서 이 사실이 확인된다.¹⁷⁾

- (22) ㄱ. H: 天, 陰, 年, 時, 山, 男, 王, 家, 門, 車
 ㄴ. L: 地, H, 月, 土, 石, 子, 父, 字, 斗, 志
 ㄷ. L̄: 宇, 電, 雨, 野, 老, 市, 病, 左, 信, 孝

聲調의 變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H와 H가 결합할 때인데, 先行하는 H가 後行하는 H 앞에서 L로 바뀌는 현상으로 ‘逆行異化’라 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23) ㄱ. 天地[HL] → [HL], 三H[HL] → [HL]
 男女[HL] → [HL], 風土[HL] → [HL]
 ㄴ. 陰陽[HH] → [LH], 山林[HH] → [LH]
 天文[HH] → [LH], 名人[HH] → [LH]

17) 이들 예는 漢字音 四聲에서 H는 平聲, L는 去·入聲, L̄은 上聲과 對應된다.

위의 (23ㄱ)의 예에서 基底聲調 HL은 表面聲調도 HL로 실현되지만, (23ㄴ)의 예들은 基底聲調 HH가 表面聲調에서는 LH로 실현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H와 H가 결합할 때는 앞의 H가 L로 바뀌게 되며, 이 現象을 지배하는 規則은 (24)로 나타내어진다.

(24) 逆行異化規則

$$H \rightarrow L / \text{ ____ } \# H$$

다음으로 L과 H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5) ㄱ. 月石[LL] → [LL], H月[LL] → [LL]

土地[LL] → [LL], 父女[LL] → [LL]

ㄴ. 女心[LH] → [LL], 七名[LH] → [LL]

主人[L̄L H] → [L̄L L], 代身[L̄LH] → [L̄L L]

위의 예에서 (25ㄱ)과 같이 L과 L이 결합할 때는 聲調의 변동이 없으나, (25ㄴ)과 같이 L(또는 L̄)과 H가 결합할 때는 後行하는 H가 先行하는 L에 同化되어 L로 바뀌는데 이런 現象을 ‘順行同化’라 하며, 이에 대한 規則은 (26)과 같다.

(26) 順行同化規則

$$H \rightarrow L / L \# \text{ ____ }$$

그리고 이번에는 音節 位置에 따라 聲調의 변동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예부터 제시한다.

(27) ㄱ. 電氣[L̄L L] → [L̄L L] 動物[L̄L L] → [L̄L L]

五H[L̄L L] → [L̄L L] 見習[L̄L L] → [L̄L L]

ㄴ. 姑母[H L̄L] → [HL], 山野[H L̄L] → [HL]

女性[L L̄L] → [LL], 世代[L̄L L̄L] → [L̄L L]

위의 예들에서 (27ㄱ)은 語頭音節에 위치한 L̄L은 聲調의 변동이 없음을 보여주며, (27ㄴ)은 非語頭音節의 L̄L은 L로 ‘單純化’됨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고유어에서 長音은 語頭音節에서만 실현된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¹⁸⁾

이런 현상을 지배하는 規則은 (28)과 같다.

(28) 單純化規則

$$L\bar{L} \rightarrow L / \sigma\# \text{ ______}$$

이상에서 國語漢字音의 聲調가 변동을 보이는 몇몇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漢字音의 聲調現象은 慶北方言에서의 고유어의 聲調現象과 일치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國語漢字音이 이미 國語에 同化되어 國語와 같은 音韻行爲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結 論

지금까지 11世國語 漢字音의 四聲이 聲調言語인 慶北方言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漢字音이 지닌 聲調의 여러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3.1 16C 文獻인 訓蒙字會는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매우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료는 漢字音 四聲이 傍點 表記에 의해 國語의 聲調를 잘 나타내고 있는 바, 慶北方言의 聲調와 뚜렷한 對應關係를 보여준다. 그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四聲>	<慶北方言>
平聲(0點)	→ 대부분 H
上聲(2點)	→ 대부분 L̄
去聲(1點)	→ 대부분 L
入聲(1點)	→ 전부 L

3.2 慶北方言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漢字音의 聲調는 그것들이 서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는데, 그 현상을 規則化하면 다음과 같다.

18) 물론 고유어에서는 피동점미사가 결합된 피동사의 경우처럼 非語頭音節에서도 音長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지만 漢字語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① 逆行異化規則

$H \rightarrow L / _____ \# H$

(H는 H 앞에서 L로 바뀐다)

② 順行同化規則

$H \rightarrow L / L\# _____$

(H는 L 뒤에서 L로 바뀐다)

③ 單純化規則

$L\bar{L} \rightarrow L / \sigma\# _____$

(L \bar{L} 은 비어두음절에서 L로 바뀐다)

이렇게 볼 때 漢字音의 聲調 現象은 慶北方言에서의 高유어의 聲調現象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 사실은 國語漢字音이 이미 國語에 同化되어 國語와 같은 音韻行爲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參 考 文 獻

權仁瀚(1997), “漢字音의 變化”, 『國語史 研究』, 太學社.
 _____(1998), 『朝鮮館譯語의 音韻論의 研究』, 太學社.
 金武林(1999), 『洪武正韻譯訓 研究』, 月印.
 金永萬(1967), 『李朝前期 漢字音의 韻律』, 『한글』(한글학회) 139.
 _____(1986), “國語超分節音素의 史的 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_____(1988), “中國語 四聲의 國語韻素(超分節音素)化에 대한 연구”, 『嶺南語文學』(嶺南語文學會) 15.
 _____(1994), “16世紀 漢字語의 超分節音素 研究—<翻譯小學>을 중심으로—”, 『人文研究』(嶺南大 人文科學研究所) 16-1.
 _____(1999), “漢文學과 語學 研究—漢詩의 律格과 聲韻學을 中心으로—”, 『慕山學報』(慕山學術研究所) 11.

- 金鎮奎(1993), 「訓蒙字會 語彙 研究」, 螢雪出版社.
- 徐在克(1968), “慶北方言圈의 漢字語聲調에 대하여”, 「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
- 宋 敏(1990), “漢字音”,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 吳鍾甲(1974), “語末去聲化의 法則”, 「嶺南語文學」(嶺南語文學會) 1.
- 李東華(1990), “慶北方言聲調의 自立分節音韻論的 研究”, 嶺南大 博士論文.
- _____ (1993), “慶北方言의 聲調와 音長”, 「嶺南語文學」(嶺南語文學會) 21.
- 이문규(1998), “성조소 기술방법론의 비교연구”, 「언어과학연구」(언어과학회) 15.
- 崔明玉(1998), “現代國語의 聲調素體系”, 「國語學」(國語學會) 31.